

# 산정동성당 6월 완공...목포, 가톨릭 성지로 뜬다

사업비 343억원 들여 2만9972㎡ 부지...공사 10년만에 위용 데레사 성녀 일부 유해·십자가 보목도 광주대교구서 옮겨 안치

목포가 가톨릭(천주교) 성지순례 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 광주·전남 가톨릭 첫 선교지이자 국내 '레지오마리애' 도입지인 목포 산정동성당 일대의 '가톨릭 성지화 사업'이 착공 10년만에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산정동기념성당이 완공되면 이 곳에는 데레사 성녀의 일부 유해와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 보목(토막)도 함께 안치될 예정이다.

5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 목포시 산정동 옛 성 골롬반병원 부지에 착공한 산정동 성지 조성사업이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목포시가 함께 추진하는 성지 조성 사업은 2만9972㎡ 부지에 사업비 343억원(국·지방비 114억원 포함)을 투입, 지하 1층-지상 4층 700석 규모의 산정동기념성당과 사제관, 교육관, 수녀원, 가톨릭역사박물관 등이 들어섰다. 기념성당에는 목포시내와 유달산 등을 조망할 수 있는 두개의 전망대와 산정동성당 초기부터 사

유했던 종들을 수리해 보관하는 종탑이 마련됐다. 또 예수님이 못 박혔던 당시의 '십자가 보목', 데레사 성녀와 부모 등 3명의 일부 유해가 모셔진다. 기념성당이 들어선 이 곳은 전북 김제 수류성당에서 분리된 광주·전남 가톨릭의 첫 선교지이자 1897년 5월 광주대교구의 첫 본당이 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목포 가톨릭 성지화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10년 착공했으나 재원 마련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후 2015년 현재와 같은 구조로 설계를 변경하고, 2016년 공사에 들어가 2017년 9월에는 레지오마리애에 활동 자료 등을 갖춘 역사박물관과 기념관을 개관했다. 기념관 개관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이 곳을 찾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레지오마리애는 천주교 평신도들로 구성된 단체다. 특히 데레사 성녀의 유해 일부와 예수님이 처형 당했던 십자가 보목도 광주대교구에서 이곳으로 옮겨져 함께 안치될 예정이다.



목포 산정동기념성당 조감도.

성녀 데레사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혹은 '하느님의 작은 꽃'이라는 의미로 '소화 데레사'라고 불리는 성녀의 수호성인이다. 2019년 성녀의 고향인 프랑스 리지외의 가르멜 수녀원에서 광주대교구로 유해의 일부가 옮겨져

'성 십자가 보목(寶木)'과 함께 가톨릭 목포성지 대성당 완공 전까지 임시로 안치해 왔다. '성 십자가 보목(寶木)'은 예수가 못 박힌 십자나무로, 2018년 2월 광주대교구에서 기증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무안군, 스마트팜 11동 보급 농가소득·노동력 절감 기대

무안군은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농업기술원 시범사업인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11동을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개발 모델 보급사업은 농작물 재배시설의 온·습도와 일조량,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측정·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만들어 농작물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단순 모델로 스마트팜을 사용해보고 추가로 필요한 센서나 장비들을 확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무안군은 농가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해 농협중앙회 무안군지부 농정지원단과 협력해 보조율 90%, 자부담 10%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팜 시설의 설치비용이 1500만~2500만원으로 고가이고, 시설 원예농가의 경우 0.5ha미만 소규모 단동하우스가 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맞춰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첨단 스마트팜 기반조성사업 8개소에 3억 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사업비를 배정하고 영농 시기에 맞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농업이 첨단화되고,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지난달 29일 해남군 공직자들이 산이면 고구마 정식 현장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 해남군, 서울시와 손잡고 영농철 인력난 해결

양파 수확 등 외국인 근로자 부족 서울시와 인력지원사업 추진

해남군은 영농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연계해 상부상조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고구마 정식과 마늘·양파 수확 등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감소해 일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해남지역 농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 대비 50% 선인 1000여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로 파악됐다. 해남군은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에서 모집된 인력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을 지원받은 농가는 숙소와 인건비를 제공해야 한다. 해남군은 또 본청과 14개 읍·면에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지역 내 일손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말 물김 수확이 마무리돼 이 중 일부 인원이 농업 현장으로 이동해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농촌 일손돕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산이면 고구마 재배 농가에서 고구마순을 정식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했다. 지난해 보다 한 달 정도 빨라진 시기로, 농촌 인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6월까지 관내 기관·단체도 참여하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업인력 지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바다 사막화 막자 해남군, 바다숲 10곳 조성

해남군은 수중 생태계 복원을 통한 기초 어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갯녹음(바다 사막화)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갯녹음이 진행된 해역에 대해 해조류를 이식해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게 되며,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한국수자원공단에서 조사한 해남군 31개소 중 갯녹음 현상이 심각하고 복원이 시급한 화산면 중마·하마 해역 4개소이다. 또 2017년부터 해상 서식기반 조성사업과 낙차해삼 산란 및 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자연석을 투석한 6개소(송지면 어벌 2개소, 북평면 남성 2개소, 문내면 입하 2개소) 등 총 10개소이다.

이식대상 해조류는 공피모 5월 중 이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5~15cm 이하 종자를 수중 암반에 뿌리를 고착시켜 잎이 자라 바다숲을 이루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조류가 풍부한 건강한 바다숲 조성으로 우리 어업인에게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해양치유 완도' 상표 등록 완도군, 브랜드 보호 기대



BI(Brand Identity) 제품의 특성과 장점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해 다른 제품과 차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

완도군이 '해양치유 완도' 브랜드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쳤다.

'해양치유 완도' 브랜드 등록은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완도군의 브랜드 권리를 선점, 해양치유산업 홍보를 강화하고 브랜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완도군은 지난 2018년 해양치유산업 BI 개발 용역을 통해 '해양치유 완도'로 최종 브랜드를 선정하고, 지난해 6월 상표 출원을 신청해 최근 등록됐다. 등록된 상표는 총 10종으로 해양치유산업 추진을 위한 업무 표지와 함께 열쇠고리, 필기구, 가방 등 기념품에 활용된다.

완도군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완도읍에서 신지도로 진입하는 회전교차로에 '해양치유 완도' 대형문자를 설치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맞춤형 홍보 영상 제작, 유튜브 영상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해양치유 완도 브랜드를 보호하고 해양치유산업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	---------------	---------------	----------------	---------------	---------------